

파괴된 自然 복구 장기간 필요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생활수준은 물론 문화수준도 높아지고 소비형태도 도시화함에 따라 농촌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여름동안 피서객이 산과들, 강과 바다등에 함부로 버려놓은 각종 쓰레기 및 우리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농약빈병은 사용자 스스로가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주변을 영원히 오염시키는 자연 파괴물로 남게된다.

내무부는 우리주변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를 가을철자연정화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야·강변 및 수로등 생활주변 및 피서객이 쉬었다간 유원지와 명승지에 널려있는 쓰레기수거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 운동이 끝나면 11월에는 농수산부가 주관하는 영농후 빈병수집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주변 및 명승지정화에 온힘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은 한번 파괴되기는 쉬우나 한번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경비 및 인력과 장세월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

|| 농약빈병의 被害와 수집의 중요성 ||

농약빈병이 반드시 수집되어야 한다

농약빈병피해양상 잘 알아야

생활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가 자연을 파괴하는 양상은 여러가지 측면으로 나타날수 있으나 여기서는 농약빈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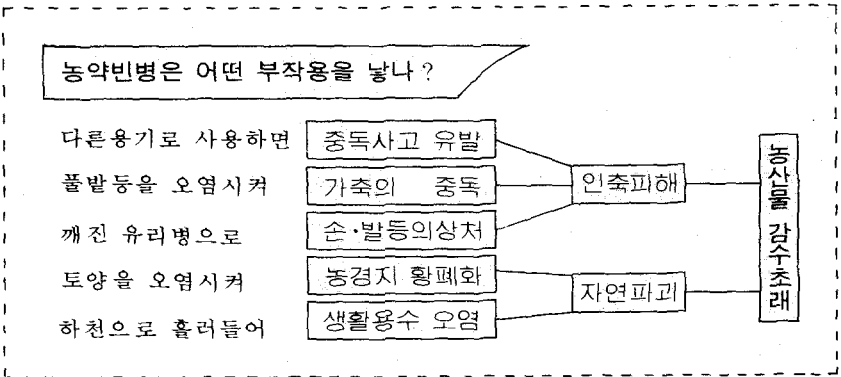
사람 피해 유발가능성 커

함부로 버려진 농약빈병은 어린이들이 주워서 놀다가 중독사고등을 유발할수 있으며 농약병에 남아있던 잔액이 흘러나와 인근 풀밭등에 묻으면 이를 먹이로한 가축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 깨진 농약병은 농작업수행에 큰 장애물이 되기도하여 귀

중한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수도 있다.

생태계파괴의 주원인 될수도

한편 장기적으로는 빈병에서 흘러나온 농약성분이 토양내 미생물군에 변화를 일으킬수 있고 잔류농약을 증가시켜 농경지의 황폐화를 가속, 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킬수도 있다. 인근 하천이나 수로등에 버려진 농약빈병은 용수(用水)의 오염원으로 작용해 생활용수를 더럽히고 수생생태계(水生生態系)의 변화를일으켜 결국 그 손실은 우리 자신에게미치게 된다.



책임의식 결여로 회수 안돼

이와같이 직·간접적으로 우

리생활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농약빈병이 아직도 농촌 구석구석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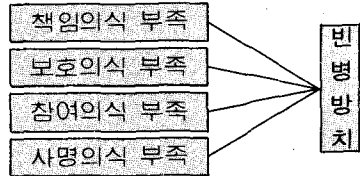
는것은 「나하나쯤 버린다고 큰 문제가 될것인가?」하는 책임의식의 부족과 「문전옥답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보호의식 부족 및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금수강산을 「스스로 가꾸고 보전하겠다」는 사명의식이 부족한데

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그피피해는 남이 아닌 바로 나에게 돌아오고 내 후손에게 위해가 끼치게 된다는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농약빈병은 왜 수집이 안되나?

나하나 쬐이야 괜찮겠지 하는
문전옥답을 스스로 지키겠다
는 솔선적으로 수집하겠다는
금수강산을 물려 주겠다는



헌병은 왜 무상으로 수집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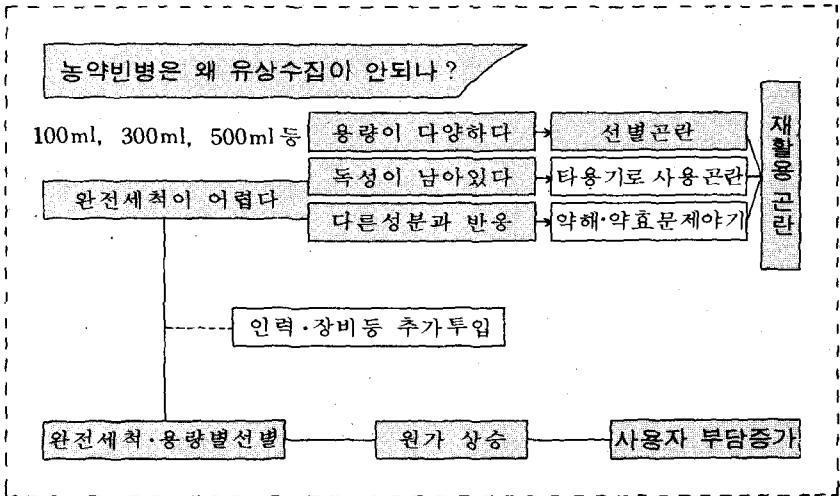
현재의 농약빈병수집은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보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유상수집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상수집제도는 농약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는 점 간과할수 없다.

다시말해 농약병은 사이다 및 콜라와같은 음료수병이나 드링

크병과 달리 그용량이 100ml, 300ml, 500ml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수집된 빈병을 용량별로 선별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뿐 아니라 용기내 세척작업이 또한 쉽지않다. 그런데농약은 독성을 지닌 정밀화학제품으로 다른 화학성분과 접촉되면 쉽게 성분변화를 일으켜 약해발생 및 약효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헌병(古瓶)을 사용할 때에는 병내부의 완전세척이 필수적이라 할수있다. 이와같이 헌병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 또

는 장비를 투입하여 선별과 세척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고약효 보증의 한 켠점으로 작용할수 있

다. 이중 어느 한작업에서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되는 것이다.



농민은 모아 놓기만 하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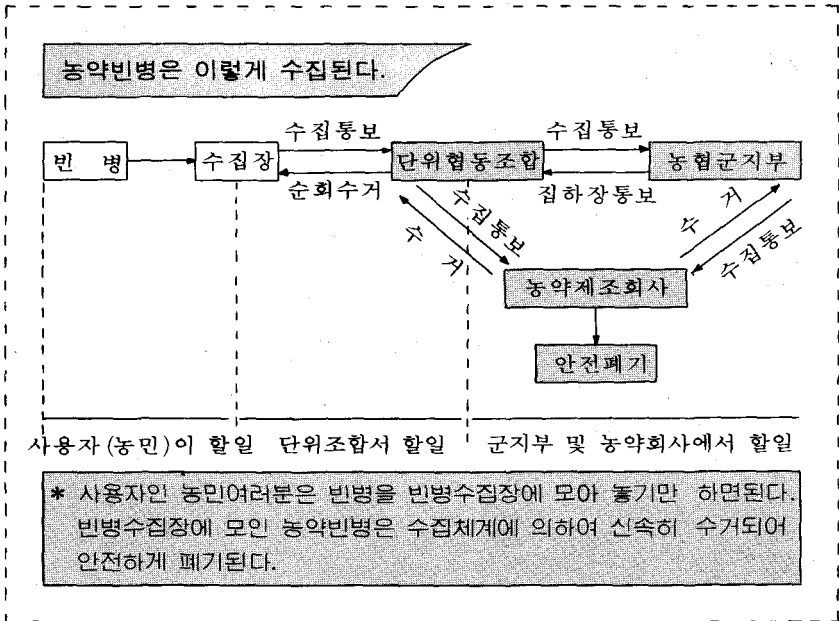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농약빈병을 무상으로 수집하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지원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의 수집체계하에서는 소비자 즉 농민은 쓰고난 농약빈병을 마을마다설치하게되어 있는 빈병수집장에 모아 놓기만하면 된다.

빈병수집장에 모아 놓은 농약병은 새마을영농회장이나 이장(理長)의 통보를 받은 단위조합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하게 된다. 단위조합에서는 여러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한 빈병의 량이 차량한대로 운반할수 있는 량이 되면 그 지역담당 농약제조회사에 연락 수거토록 하고 차량 1대분에 미달될때는 농협군지부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재집결시키고 군지부에서 농약제조회사

에 연락, 수거토록되어 있다.

다시말해 농약빈병수집운동의 성패여부는 농약소비자가 쓰고 난 빈병을 「빈병수집장」에 자발적으로 모아놓느냐 아니냐에 달

려 있다. 설령 농약병을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수집한다해도 사용자가 귀찮다는 생각으로 모우지 않는다면 이 운동은 절대 성공할수없다.



공감대 형성으로 효과거양

모든 운동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감대(共感帶) 형성이다. 이 공감이야 말로 무한의 힘이 될수 있고 가장 강력한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할 보이지 않는 추진력이다.

이런 무형(無形)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적 참여와 독려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협의회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영농회원·새마을청소년회원·자연보호협의회원등 마을지도자들은 본 운동의 필요성을 깊

이 인식하여 자신이 모범을 보이며 이웃을 독려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며 행정·지도·및 농협·농지개발조합 등 각급 기관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계몽·이동순회홍보활동 전개·현수막·입간판등을 게시하여 공감대형성을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공감대와 분위기가 무르익을때 비로서 사용자 스스로가 쓰고난 빈병을 함부로 버

리지 않을것이고 한결음더나아가 버려진 빈병을 줍는 것이 습관화될때 빈병공해없는 깨끗한 농촌환경이 조성될수 있을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빈병수집운동은 사용자(농민)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 깨닫고 술선수법으로 깨끗한 농촌환경가꾸기에 앞장 서야 할것이다.

